

광주 찾은 예술계 석학 존 라이크만



세계적인 미학자 존 라이크만 교수가 15일 미디어 아티스티 이이남씨의 작업실에서 이씨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역사적 아픔 형상화, 한국미술의 특징 이이남씨 작품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

한국작가 10명 조명 책 집필... 광주선 이이남씨 유일

“지역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하며, 자신의 작품을 ‘세계적인 문맥’에 올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뢰즈와 푸코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 존 라이크만(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가 한국 신에 작가 10명을 추려,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15일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의 작업실을 방문해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10명의 작가 중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이씨가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8일부터 서울 무역 전시장에서 열린 ‘2010 코리아 투마로우’전을 3일간 둘러본 뒤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이대형씨와 함께 기획중인 책 ‘코리아 10 아티스트’의 집필을 위해 작가들을 일일이 면담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작업실 탐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지켜보며 작가들이 이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북돋는 토론을 펼치는 등 한국 미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현대 미술은 스케일만을 강조하는데, 한국 미술은 일본·중국과 다른 역사적인 아픔을 적절하게 형상화하면서 세계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역사와 작품이 융합하는 능력이 탁월한 점이 동북아미술에서 한국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는 서구 화단에 한국 관련 자료가 빈

약해 국내 미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자신의 제자인 이대형씨의 도움을 받아 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인 작가 명단은 책이 나오는 내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저평가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발굴해 그들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이남씨를 선정한 이유는 작품이 참신하고, 단순히 유명 고전 작품을 디지털을 활용해 움직이게 한 아이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많은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고 밝혔다.

“2010 코리아 투마로우”전에 출품한 한국작가들 중 이씨의 작품이 가장 충격

적이고, 인상적이었요. 아시아 작가들을 보면 서구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데 이이남은 이런 차용을 매우 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과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 화단에서 통할 수 있는 미적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작품 자체에 대한 고민과 작품을 세계 화단에 내놓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 지난 1996년 광주비엔날레 관련 글을 발표하기도 했던 그는 “비엔날레가 유명 작가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평가된 작가들을 발굴해 알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존 라이크만은 누구?

급성장하던 중국 미술이 경기 침체 여파로 주춤하면서, 가장 먼저 택했던 것은 이론 강화였다. 중국은 존 라이크만을 6개월간 초청해 자국 작가들의 평론을 부탁하는 등 ‘사상의 편입’을 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미술사학자인 존 라이크만의 입을 빌려 중국 미술의 거품을 빼고, 이론적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시도였다. 이 기간, 중국

의 유명 작가들은 그의 평론을 의뢰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MIT 등에서 미술사와 철학을 가르치는 라이크만 교수는 1980년대부터 들뢰즈와 푸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미셀 푸코:철학의 자유’와 ‘들뢰즈 카넬선’ 등을 펴냈다.

또 지난해 30만명의 관람객을 모은 영국 사치 갤러리의 ‘코리안 아이’(Korean Eye)전과 서울 예술의 전당의 ‘블루닷 아시아’(Blue Dot Asia)전 등을 이대형 큐레이터와 함께 기획했다.

/오광록기자 kroh@

배우와 관객 “감동 함께 나눠요”

광주연극협회 16일부터 ‘소극장 연극축제’

개막작 ‘학문외과’ 어린이를 위한 ‘흑부리’ 등 풍성

광주연극협회(회장 차영화)가 주최하는 제13회 광주소극장 축제가 16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관객들을 찾아간다. 공연장소는 씨디아트홀(전남대 정문 사거리), 공동예술극장(예술의 거리), 공연일번지(금남공원 옆), 문예정터(계림동 홀플러스 옆) 등 지역 소극장 4곳이다.〈공연 일정은 표 참조〉

개막작인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의 ‘학문외과’는 지난해 초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숨기고 싶은 질병 ‘치질’에 걸려 한 병실에 입원한 이들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본 작품으로 이기인씨가 희곡을 쓰고 극단 대표 이형원씨가 연출을 맡았다. 고난영·김상오·정경아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시민은 체훈의 작품 ‘침혼’을 무대에 올린다. 과학한 성격 가진 노처녀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소심한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작품으로 강윤희·이철승씨 등이 출연한다. 연출은 정철 동신대 교수.

창작극 ‘사캐다이’는 유괴씨어터의 작품으로 연극 제목은 ‘사랑이 깨지는 다섯가지 이유’의 줄임말이다. 작품이 말하는 다섯 가지 이유는 바람, 무인, 집착, 무능, 그리고 거리. 실연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등장,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간다. 극단 대표 김군형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다.

극단 Y가 무대에 올리는 ‘마요네즈’는 문학동네 신인작가상을 받았던 전혜성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모녀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작품이다. 양정인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경옥·강유미씨가 모녀로 출연한다.

극단 DIC은 안톤 체훈의 단막극 ‘침혼’과 ‘곰’ 두편을 ‘침혼 소동’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무대에 올린다. ‘곰’은 미방인과 그녀 앞에 갑자기 나타난 퇴역중위의 퇴역대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린 작품이다. 문진화·이현숙·임홍석씨 등이 출연한다.

극단 ‘얼·아리’는 무성영화로 많이 알려진 ‘검사와 여선생’을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흑부리 아저씨와 비보이 도깨비’는 극단 진달래 피네가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고전 동화 ‘흑부리 영감’을 소재로 한 뮤지컬로 오세준씨가 연출과 대본을 맡았다.

티켓가격 1만5000원, 1만원. 한혈증을 제시하면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씨너스 전대점 관람권과 소극장 축제 관련 티켓 소지자에게도 3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극장 축제 일정

일정	극단	작품명	장소
12. 16~18 23~25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학문외과	씨디아트홀
21~23	시민	침혼	공동예술극장
28~30	유괴씨어터	사캐다이	공연일번지
30~31 2011. 1. 6~8	Y	마요네즈	공동예술극장
13~29	DIC	침혼소동	공연일번지
13~15	얼·아리	검사와 여선생	씨디아트홀
14~16	진달래 피네	흑부리 아저씨와 B-boy 도깨비	문예정터



문화재단 23명 모집에 585명 지원

경쟁률 26:1... 최종 합격자 23일 발표

내년 1월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 신규채용에 무려 585명이 지원,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3명 모집에 모두 585명이 지원, 평균 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가장 지원자가 많이 몰린 분야는 일반직 6급으로 3명 정원에 무려 283명이 지원, 94.3대1을 기록했다. 또 5급(4명 정원)에는 140명이 지원,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4급(5명 정원)과 3급(7명 정원)에는 각각 62명과 54명이 지원했다. 가장 높은 직급인 2급(2명 정원)에는 모두 13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또 2·3급 고위직 응시자들 중에서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49명에 달했으며 독일 뮌스터 대학 등 해외 유학파도 10명이 접수했다.

이번 공개채용에서 광주를 제외한 외지 접수자는 129명으로 약 21% 수준이며 여성 응시자 비율은 52%였다.

이번 공개채용 인원은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예술, 경영관리, 문화시설 운영 분야에서 모두 23명이다.

시는 17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며 면접은 오는 21일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다. 문의 062-655-26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송년, 신년 모임도 아리랑 하우스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소중한 자리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빈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견례, 회합,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에이**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하우스 **문의** **525-2111**
www.geumss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클라비스시네마** 아남점

1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2관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 (15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4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5관 투어리스트 (15세)
6관 워리어스 웨이 (15세)
7관 김중욱 찾기 (12세)
8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 (전제)
9관 세미의어드벤처 (전제)
10관 투어리스트 (15세)

항토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1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최고급관
2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 (전제)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4관 투어리스트 (15세) / 제대한 로맨스 (18세)
5관 세미의어드벤처 (전제) / 나니아연대기 (전제)
6관 김중욱 찾기 (12세)
7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8관 김중욱 찾기 (12세)
9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이금 부과

CINUS

1관 제대한 로맨스 (18세)
2관 투어리스트 (15세)
3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4관 스위치 (15세) / 세미의어드벤처 3D (전제)
5관 나니아연대기:세벽중정호의 항해 (전제)
6관 김중욱 찾기 (12세)
7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전제)

색깔있는 영화상객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